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발급

전북은행, 본점서 '전주 함께하트 카드' 발급 개시  
오늘부터 전주 전 영업점서... 발급당일 전액 충전  
지역마트·편의점·음식점 등 시 소재 사업장서만 써야  
사용기간 7월 31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전주시로 환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3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압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 1층 임시 배부처를 마련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했다. 이는 지난 1일 전북은행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선불카드 업무제휴 협약 후속조치이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북은행의 '전주 함께하트 카드'라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카드'라는 선불카드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전북은행은 전주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사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일에는 본점 임시 배부처에서 발급했으며, 오늘부터는 전주시 관내 전북은행

전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시민들의 편리한 선불카드 발급을 위해 토요일인 11일, 18일, 25일에도 본점 임시 배부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발급당일 전액 충전되며 지역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 전주시 소재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할인점,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업종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7월 31일까지고, 미사용 금액은 전주시로 전액 환수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항토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3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압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 1층 임시 배부처를 마련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발급했다.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성금 전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독거노인 생필

품 전달',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 '사랑의 과일나눔', '친환경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 지원

###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 도교육청에 성금 1500만원 전달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직원 특별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병철 노조위원장, 나영성 교육혁신과장, 이재문 전북도 교육청 지점장, 서영숙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달 적립한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복지학교 취약계층 및 조손 가정 학생들의 학업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임직원들의 뜻을 한데 모아 전달한 성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함으로 전달될지 바란다"며 "앞으로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눔의 손길을 건네는 지역공익활동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직원 특별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600여명의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 농촌일손돕기,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은,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1.5% 금리 특별 금융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1~3등급) △연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 인원(공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이며 고정금리 1.5%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이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며, 신청 후 3~5일 정도면 대출 실행이 이뤄져 빠른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임용택 행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우려로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직접지원 또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통한 피해구제 및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래형 실내농장인 '21C 정조 프로젝트'의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와 관련된 과제를 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1C 정조 프로젝트'는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해 수원을 자급형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현대농업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에 첨단과학이 융복합된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도시형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1C 정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첨단도시형 R&D 센터는 둔방형 빌딩농장을 포함해 생산, 소비, 스타트업, 학문, 체험, 문화를 두루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첨단도시형 R&D 센터가 기존의 실내농장에서 벗어나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과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순 농진청 연구운영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자료는 정조대왕의 꿈이 미래 농업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데 귀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며 "21C 정조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자가진단표'로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

농식품부, 퇴비부숙도 시행 대응... 농가 등에 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3.25)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오늘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해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한다.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해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관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속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미래형 실내농장 아이디어 공모

농진청 '21C 정조 프로젝트' 모델 개발 위해... 21일까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미래형 실내농장인 '21C 정조 프로젝트'의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아이디어와 관련된 과제를 이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1C 정조 프로젝트'는 도시 축성과 농업기반을 마련해 수원을 자급형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대왕의 꿈을 현대농업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부지 일부에 첨단과학이 융복합된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첨단도시형 R&D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1C 정조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첨단도시형 R&D 센터는 둔방형 빌딩농장을 포함해 생산, 소비, 스타트업, 학문, 체험, 문화를 두루 아우르는 융·복합공간으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첨단도시형 R&D 센터가 기존의 실내농장에서 벗어나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과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순 농진청 연구운영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자료는 정조대왕의 꿈이 미래 농업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데 귀중하게 활용될 계획"이라며 "21C 정조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